

초등학교 구강보건, 구멍 뚫렸다

지난 6월 30일까지 각 시·도 초등학교는
교육법 학교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구강검사는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 중의 하나다. 현재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검사 외에도 불소용액양치사업과
구강보건교육 등이 있으나 많은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현황과 함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취재 / 안정미 기자



보스톤에서 태어나 Skidmore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가을학기부터 콜롬비아 치대에서 구강외과학을 공부할 예정인 Christopher Bougopoulos는 다음과 같이 치과와 관련된 행복한 어린시절의 기억을 회상한다.

〈나는 여섯살 때부터(한국나이 여덟살) 반드시 일년에 두 번씩 치과외사를 방문했다. 나는 특히 베카박사님이 세가지 맛을 가진 불소물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던 여름학기를 무척 좋아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입안에는 포도맛의 불소물을 문 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건 정말 멋진 인생이야"라고 생각하곤 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치과검진은 더없는 행복이었다. 대기실에 있는 장난감들, 친절하 직원들, 산뜻한 기구들, 그리고 명랑한 치과외사 선생님, 지금 그 모든 치과검진을 되새겨보면서 나는 내 치아를 잘 관리해주신 베카박사님께 감사드린다.

미국에서는 예방의학에 대해 생각할 때 치과외학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것은 일년에 두 번씩의 검진을 요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소가 함유된 물을 마시며 치과계의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염두에 둘 때 과연 그렇다.)

우리나라의 아동도 치과를 정기적으로 두 번 방문하고, 치과가 때로는 기쁨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까?

아동기 구강보건사업, "나 물라라" 안돼

지난 97년 국민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병 중 특히 아동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치아우식증은 12세 아동에서의 유병율이 1972년에 비해 1995년에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국가 주도하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한 나라에서는 그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표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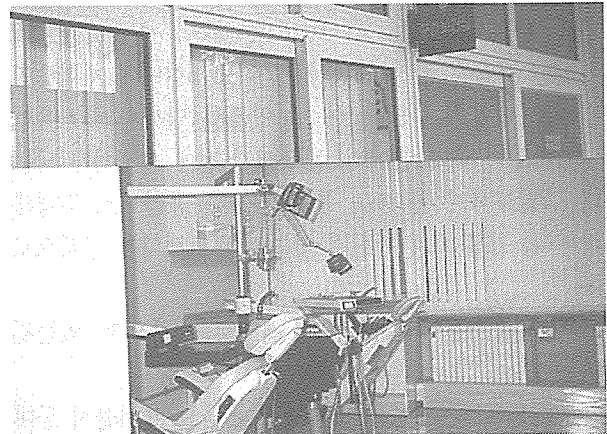
표1. 한국 12세아동 1인 보유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수 변화추이 및 추계

조사 연도	우식경험영구치아수		
	계	도시	비도시
1972	0.6		
1979	2.2	2.5	1.7
1990	3.0	2.9	3.3
1995	3.1	3.0	3.6

표2. 세계 주요국의 12세 아동 1인 보유 평균 우식경험영구치아수의 변화

국가명	우식경험영구치아수(연도)	우식경험영구치아수(연도)
핀란드	7.5(1977)	3.0(1990)
홍콩	2.0(1970)	1.5(1986)
프랑스	3.5(1975)	3.0(1990)
캐나다	6.0(1977)	4.3(1988)
영국	4.7(1973)	3.1(1983)
스위스	9.0(1975)	2.4(1988)
미국	4.0(1967)	1.8(1987)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의 발생률이 높다 ; 학교 생활에서 배운 구강보건 지식으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관리한다 ; 교합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다 ; 치아가 형성되는 시기다'라는 말은 초등학교 시절의 구강보건의 중요함을 말해준다.



지난 97년 12월 서울명신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됐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양치사업, 잇솔질사업, 정기구강건강조사사업,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의 구강보건관리실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치과외사에 의해 구강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부속초등학교와 서울명신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으며 이 외 시·도에도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구강보건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보건

소나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실에서 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학교보건원 구강보건관리실곽정민 실장은 “치과의사가 배치된 구강보건실의 설치가 많은 학교로 확대됐으면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치과의사를 다수 고용하여 치면열구전색(실런트)을 비롯한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라며 구강보건실의 중요성을 말한다.

불소용액양치사업, 정말 시행하는지 확인해 봐야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안지은 학생은 매주 수요일 오전 자습시간에 으레 하는 일이 있다. 불소가 함유돼 있는 용액을 입에 머금고 양치하는 것. 안지은 학생은 불소가 구강에 왜 좋은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수요일만 되면 같은 반 급우와 함께 불소용액을 머금고 조별로 질서있게 화장실에 가서 뺏어 낸다.

반면 서울시 광진구 광남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김태중 학생은 한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꽤 불만이다. 체육시간 전에 실시하게 되는데 담임교사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운동장으로 직행해 버린다. 귀찮게 왜 이런걸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

과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걸까?

불소용액양치사업은 1976년에 처음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혜원여자중학교 전교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983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상수도불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는 대표적 예방사업이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주1회 0.2% 불화소다용액으로 양치하는 방법과 매일 0.05% 불화소다용액으로 양치하는 방법이 있다. 매일 실시하는 것보다는 주1회 실시하는 것이 실행하기에 수월해 주1회 실시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527개 초등학교 모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교 자체에서 보고서를 올리는 형식이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상수도 불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실시하는 대표적 예방사업이다.

단국치대 예방치과 신승철 교수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치아우식이 많이 예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실시하는 학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힌다.

또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김신엽 치과대표는 춘천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로 재직 중, 보건소의 보고서에는 다수의 학교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보고와는 달리, 진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아동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실시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불소용액양치사업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학교보건원곽정민 실장은 정기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모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구강검진사업, “결과가 의심됩니다”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구강검진사업은 인적, 시간적 면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지만 조사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다소 소홀하게 이루어져 기초실태조사자료로서나 계속구강건강관리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평이다.

학교 내에 기본적 치과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구강검진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며 또한 사후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학생, 양호교사 모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구강보건협회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M초등학교 S양호교사는 치과 의사가 자연광선에 의해 구강검진을 하는 것을 볼 때면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자녀가 구강검진 후 치아우식증이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받았으나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니 치아우식증이 아니라고 판정돼 구강검진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이 간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난 5월 구강검사에 참여한 L원장은 유니트케어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구강검사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으며 또한 각종 편법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 검진의 정확성 및 정밀성 보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S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치과 의사가 특별히 상담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형식적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단지 구강검사의 한 대상자일 뿐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라며 구강검진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서현석 연구관은 “악법도 법입니다. 어떤 제도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개발하면서 그 제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강검진도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며 구강검진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한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 예민한 많은 치과 의사는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현저히 낮은 의료보험 수가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는다. 그러나 일선에 있는 L양호교사는 다음과 같이 한마디 한다. “치과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는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

다. 치과 의사의 경우도 봉사차원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없나요.”

또한 구강검진 결과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것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강보건교육사업, 교과서 내용 수정돼야

구강보건교육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한치과 의사협회 치무국에서 97년에 분석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구강보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8건, 2학년 4건, 3학년은 2건, 4학년 4건, 5학년 4건, 6학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보건과 관련된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구강보건과 관련된 내용은 통계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성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구강보건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보건에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이 지식위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의 성숙 정도에 따라 심화되어 가는 체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새로운 보건교과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타의로계도 말한다.

치협 장계순 이사는 “교과서를 통해서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기본지식(6세에 영구치 형성, 임신중 치아관리나 수유자세가 육아에게 미치는 영향, 우유병 우식증 등)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수많은 이권단체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교과서 교안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에 치과 관련 내용이 첨가되는 것은 시기상 어려운 형편입니다.”라고 말한다.

“특수학교만이라도 구강보건실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특수학교 문제. 전국 109개의 특수학교에 21,860명의 학생이 있으며 장애아동은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시각·언어장애자 등 다양하다. 현재 이들의 구강보건도 교육부 주관으로 돼 있어 장애아동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

다.

학교보건원 구강보건관리실곽정민 실장은 “지금 현재로서 모든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는 것은 요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몰라도 특수학교만이라도 유니트체어를 갖춘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위생사를 배치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한다.

장애아동의 구강보건에는 스킬과 함께 특수장비와 기구가 필요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곽실장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자발적 불소용

액양치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소도포 가능 아동을 선별하여 실시하는 전문가불소도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학교에서는 치과위생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특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진료시에는 특수한 마취와 기술이 요구되므로 훈련된 치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홍보자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으로 된 구강보건 홍보자료가 필요합니다.”라며 특수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의 미흡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Interview

동대문역에서 낙산행 마을버스를 타고 굴곡이 심한 길을 거쳐 가면 아랫동네가 훤히 보일 정도의 높은 곳에 서울명신초등학교가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다소 어려운 학생이 다니는 이 학교는 '다'급으로 분류된다.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임애규 양호교사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들을 지도한다.

“치과 가기에 어려운 형편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임애규/서울명신초등학교 양호교사

임교사는 비교적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 학교보건원의 구강보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나오기에 임교사는 학생들의 구강 스케줄을 잡아주고 진료시에 보조해 주는 일이 하나 더 늘었지만 학생들의 구강건강이 더욱 좋아지리라는 기대에 힘든 줄 모른다.

작년 97년 12월 구강보건실이 처음 마련될 때만 해도 막연했고 어떻게 관리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교사는 구강보건실 설치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최초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구강보건실에서는 700여명의 학생에게 구강검사, 치면열구전색(실런트), 치면세마, 우식병소충전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성교육, 약물교육, 비만교육 등 해야 할 교육이 많지만 그 중 구강보건교육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할지 고민됐지만 방과후 진료를 하거나 시간을 조정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도 해 지금은 다소 체계가 잡힌 상태다.

임교사는 “구강보건실이 생김으로써 1년에 한 번씩 모든 아이들이 진료를 받게 됐어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에게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